

매트릭스 투자자문 레터
2026년 1월호

"뜨거운 투자들의 시작!"

존경하고 사랑하는, 매트릭스 투자자문 창립, 초대회원님.
그리고 막 회원이 되신 26기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나 추운 겨울이지만 춥다는 느낌이 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움이 마음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저희는 작년 9월 26일 첫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약이 시작된 이래 꽤나 괜찮은
투자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임은 명백합니다.

지난 11월 레터에서 저는 놀라움을 담아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수가 3748포인트를 기록하며,, 단숨에 300포인트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

그로부터 겨우 2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코스피 주가지수**는 5150pt를 돌파하였습니다.
무려 1500pt 가까이를 단 2개월 정도 만에 도달하였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지수는 계속 오르막을 타고 있습니다.

숨가쁜 주가지수의 상승 앞에 서서, 수익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운용자가 몇 명이나
될 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투자 심리는 과거 2500 때보다 월등히 뜨거워졌습니다.
5천포인트 도달 시점부터 제대로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뜨거운 투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도록 저와
함께하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시장을 강하게 봤는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그동안의 한국에 있는 자산의 물꼬를 주식
시장으로 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이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이런 강세장이 올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했지만 속도는 상상을
불허할 만큼 빠릅니다. 결국엔 갑니다. 그러나 **조정**도 언제든 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 대응이 무난했고, 조금은 편했습니다.
저희들의 투자철학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레터
2026년 1월호

"뜨거운 투자들의 시작!"

훌륭한 현금창출 능력과 주주환원 정책을 확실히 갖췄으며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추가적인 옵션을 걸었습니다.

성장이 나오는 저평가 고배당 기업 말이죠.

5천포인트가 오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끝까지 다 수익을 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현금화로 물러서는 방법과,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있는 또다른 저평가 영역으로의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두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지속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적을 만들어 내는 것을 술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4년 이래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 중 수익률이 높게 형성된 주식들은 점차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일부 **증권주**가 포함되어 있고, 금융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런 강세장에서조차 소외 받고 있는 가치를 품은 기업들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디플레 국면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을 제임스 몬티어는 그의 책 “가치투자 나침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뽀짝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 회원들의 **장기적 자산 성장과 노후를 위한 자유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제와 새로운 탐구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사이클이 매우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점차 현금화 비중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놀랍게도, 5~8만원에서 그토록 부정적이던 시선들이 지금은 뜨거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항상 이러한 궤적을 그려 나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아도, 아쉬움을 남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 지수가 파죽지세로 5150pt를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저희 레이더에 걸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점차 **리서치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레터
2026년 1월호

"뜨거운 투자들의 시작!"

올해 들어 저희는 숭실대학교와 산학 연계를 통해 가치투자연구소를 창립했고, 이 연구소를 통해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 우수한 인재들과 더불어 투자의 깊이를 더해갈 예정입니다. 올해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된 기업들은 우리들의 이러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과거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전통적인 관점으로만 측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멀티플**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저희는 최근 한국의 전력 핵심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입 중 갑작스럽게 올라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의 연구에 의하면 결국엔 저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 환경에 맞춰 투자한 기업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총자산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은 언젠가 한 번 멋지게 불을 뿜을 수 있지만 (최근 삼성전자, 키움증권, 현대차처럼) 기본적인 사양으로는 **충분한 배당**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회원들이 저희와 오랜 시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자산이 4배 또는 10배 이상 가야 **진정한 복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자산이 5~10배 늘어난 상태에서 점검해보시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복리는 이론상으로는 잘 와닿지 않지만 자기 계좌 사이즈가 커지면 본격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때까지의 인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수가 빠르게 5천포인트를 돌파하여 말이 길어졌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2의 배터리가 다시 시작되는군요. 참으로 우리 인간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코스닥이 여기서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를 지키는 게 원칙이자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는 쾌청함도 가져다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을 즐기시지요~
감사합니다.

* 마지막 장에 부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 1월호

"뜨거운 투자들의 시작!"

퇴직연금 운용 포트폴리오 가이드

<26년 1월 신규 제안> : 반도체 축소, 자동차 확대, 지주사 수익확정, 적립식 도입.

1. 증권금융 예금 30%
2. 증권 30~35%
3. 자동차 15~25%
4. 반도체 7~20%
5. 건설 5~10%
6. 고배당 ETF 적립식매수
7. 코스피200 ETF 적립식매수

과거 제안 포트폴리오

<25년 12월말 퇴직연금 제안> : 자동차 비중확대

1. 증권금융 예금 30%
2. 반도체 20~30%
3. 증권 30~40%
4. 자동차 10~20%
5. 지주사 5~15%
6. 건설 5~10%

<25년 11월 퇴직연금 제안>

1. 증권금융 예금 30%
2. 반도체 20~30%
3. 증권 30~40%
4. 지주사 5~15%
5. 자동차 5~15%
6. 건설 5~10%

<25년 10월 퇴직연금 제안>

1. 증권금융 예금 30%
2. 반도체 25~35%
3. 증권 30~40%
4. 지주사 5~15%
5. 건설 5~10%

별책부록

2026년 1월호

"뜨거운 투자들의 시작!"

<25년 4월 퇴직연금 제안>

1. 증권금융 예금 : 30%
2. 반도체ETF : 20~40%
3. 증권 ETF : 30~40%
4. 지주사 ETF : 5%~15%
5. 건설 ETF : 5~10%
6. 펀드 : 베어링 고배당

‘당신의 백그라운드 매트릭스 투자자문’
선택의 자유를 확보해드리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시각으로
각도를 올림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광상준 올림.